광주 풍암고, ‘발달장애인 자기권리 주장대회’ 대상·금상

2학년 고기준 대상 ·정대진 금상 수상

장애학생들 꿈 이뤄 나가는 계기 마련

광주 풍암고가 지난 14일 광주 남구생활문화센터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2020년 발달장애인 자기권리 주장대회 광주지역예선에서 대상, 금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 학생부로 참가해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인 풍암고 2학년 고기준 학생이 대상을 2학년 정대진 학생이 금상을 획득했다.

발달장애인 자기권리 주장대회 광주지역예선은 매년 발달장애인들이 스스로 자기 권리를 배우고 주장해 그 권리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광주광역시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와 광주 북구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사업이다.

이번 대회는 ‘자유롭고 신나고 감동이 함께’를 주제로 일반부 18명과 학생부 2명 등 총 20명이 참가했다. 대회 전 전문 스피치 강사로부터 자기권리 주장교육 6회 받았고, 발달장애인의 자기 표현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었다.

이번 대회에서 수상한 풍암고 2학년 고기준 학생(대상)과 정대진 학생(금상)은 내년 개최되는 전국 발달장애인 자기권리 주장대회에 참가할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고기준 학생은 2021년 발달장애인 자기권리 주장대회 광주지역예선에서 지도교사와 함께 사회를 진행하게 된다.

풍암고 2학년 고기준 학생은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연습한 결과 대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거 같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연습해 전국대회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풍암고 2학년 정대진 학생은 “처음 시작할 때에는 많이 긴장되고 힘들었는데,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둬서 기분이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풍암고 장지현·최태욱 지도교사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연습해 준 학생들이 너무 자랑스럽다”며 “장애학생들의 꿈을 현실화하기 위해 동행할 수 있는 특수교사의 역할을 하고 싶고,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며 자기 권리를 당당히 말하는 학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함평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언제든 불러주세요”

자원봉사자 10명…집안 내·외부 정리 및 노후 싱크대 교체

함평군은 지난 14일 엄다면복지기동대와 연계해 지역취약세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자원봉사자 10여 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독거노인 세대를 방문해 집안 내·외부를 정리하고 노후 싱크대를 교체했다.

또한 가파른 경사로 낙상 위험이 있었던 툇마루 경사로를 정비하고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했다.

장정진 엄다면장은 “생업이 있는데도 어려운 지역 이웃을 위해 기꺼이 봉사에 나서주신 복지기동대원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간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에 최대한 협력하면서 지역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9개 읍·면에 총 77명으로 구성된 함평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불편해소를 위해 조직된 민·관 협력 봉사대로, 의료·전기·집수리·가스 등 분야별 전문가와 이장,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으로 이뤄져 있다.

함평=김광춘 기자

담양 수북면, 복지기동대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사업

독거노인 15가구 대상 설치

담양군 수북면복지기동대(기동대장 전채우)는 지난 15일 관내 치매 고위험군 독거노인 15가구를 대상으로 가스안전차단기를 설치했다.

가스안전차단기는 음식을 조리하다가 다른 일을 하거나 외출하는 경우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을 준다.

전채우 기동대장은 “안전사고에 취약한 노인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강진군, 감정 톡톡 마음 힐링 프로그램 운영

군민 대상 심리지원 · 힐링프로그램 실시

강진군은 오는 19일부터 11월 26일까지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상황으로 힘들어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및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감염에 대한 공포와 이동 제한 등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 지속되며 군민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강진군보건소에서는 군민들이 자가건강 관리 능력 향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감정톡톡 마음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무기력증과 답답함, 불안감, 수면장애가 있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참여자 모두에게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한다. 우울 수치가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심층상담을 진행하고 이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상담을 의뢰하거나 정신의료기관까지 연계한다.

프로그램은 전문 강사진을 초빙해 진행되며 심리이완을 위한 요가 및 힐링 원예요법 수업을 주 2회 씩 12회에 걸쳐 실시한다.

서현미 강진군보건소장은 “그동안 답답하고 우울한 시간을 보냈던 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며 “군민들께서 우울증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고 필요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도 받으면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과 불안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